

문학예술의 도구성과 종속성

북한 「문학예술사전」을 보고

이남호

문학평론가 · 고려대 교수 · 국문학

추상적 의미부여 억제해야

「문학예술사전」은 북한의 「과학백과사전 출판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도서출판 「열사람」에서 영인본으로 재간행한 책이다. 가까우면서도 멀었던 책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영인상태가 불량하고 출판정보가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아쉬움은, 이런 책이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군소출판사에서 영성한 영인본으로 나와야 할 것이 아니라 원본이 그대로 입하되어 유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 사회가 북한 원전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점은, 공권력에 의한 촌스런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고 또 수용자들은 맹목적 호기심에 의한 추상적 의미부여를 억제하고 그것들을 냉정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지적 분위기가 북한 원전들 중에서 일반적 가치가 있는 것과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들을 변별할 수 있고 또 호기심을 넘어서는 엄격성을 지닐 수 있다면 북한 원전의 수용은 우려할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직은 당국도 또 수용자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듯하다. 당국은 여전히 촌스런 규제의 칼을 거두지 아니하고, 수용자의 일부는 아직도 호기심에 의한 맹목적 친화성을 보인다.

「문학예술사전」은 국판 1233쪽에 약 1800여개의 항목(이 책에서는 항목 대신에 '올림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감이 좋다. 그래서 이하 항목 대신 올림말이라는 용어를 쓰겠다.)이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전문적인 용도보다는 대중적인 용도로 편찬된 것으로 보이지만, 문학과 예술 전반을 포괄하는 사전으로서의 너무 소규모의 책인 듯하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일상적 실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남한 사회에서는 소수의 연구자나 특수한 관심을 위한 자료의 가치 이외에 일반적인 사건의 역할은 거의 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대중 출판을 할 만한 책은 못된다고 판단된다.

지식의 편향성과 폐쇄성 노출

이 사전이 자료의 가치가 있다 함은, 북한 사회에서 문학예술적 지식의 성격과 규모와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북한 사회의 문학과 예술에 관한

「문학예술사전」은 전문적인 용도보다

대중적인 용도로 편찬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의 연구자나

특수한 관심을 위한 자료로밖에는

구실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북한 사회가 가진 지식의 편향성과

폐쇄성, 문학예술의 이데올로기계의

종속성을 역력히 드러내준다는 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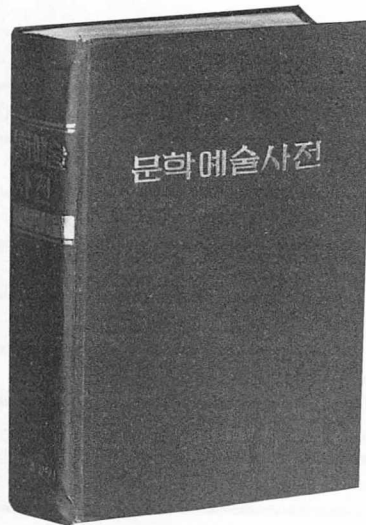
오히려 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보편지식을 두루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문학예술사전」을 일별할 때,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은 북한 사회가 지식의 편향성과 폐쇄성이 강하며 고립된 문학예술공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다음과 같은 지적들이 이 생각의 근거가 된다.

첫째, 올림말의 선정에 어떤 기준이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올림말의 선정이 일관성 있고 조리있으면 적은 수의 올림말로써도 좋은 사전이 될 수 있는데, 수록된 올림말을 검토해보면 의외한 느낌을 준다. 가령 '하이네'와 '바이런'은 있으면서 '릴케'는 없다. 차이코프스키나 '폴스토프'는 있으면서 '또스또옌스키'나 '빠스페르나코'는 없다. '솔로호프'도 없다. '운동주'나 '이육사'도 없다. '슈베르트'는 있는데 '바하'는 없다. 이런 의미함은 작품명을 찾아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금오신화'나 '홍루몽'은 있는데 '구운몽'은 없다. 북한 사회체제에 필요한 것들만 선정한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올림말들이 많이 안보인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예술작품 올림말들은, 거의가 현재 북한사회 작품들이고 그의 우리 고전작품이 상당수 있으며 세계성을 띤 외국작품은 맛보기로 조금 들어 있을 따름이다.

둘째, 책의 부피에 비해 올림말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동서고금의 작가명, 작품명, 악기명, 공예품, 건축물, 공연단체이름, 예술 용어, 예술기법 등등 올림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리 많지 않은 올림말 가운데 '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콩쥐팍쥐'가 있는가 하면, '베니스의 상인'도 있고, '비올라'



와 '장고'도 있고 '서산3존마애불상'도 있고 '기둥'이란 올림말도 있다. 그러니까 하면 '서예' '문학' '미술' '음악'과 같은 올림말도 있다. 그러니까 辭典의 성격도 섞여 있는 셈이다. 부피가 작으면서 많은 종류의 올림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 그 올림말의 그물이 매우 소루함을 뜻한다. 좋은 사전이 되려면, 올림말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그대신 그 범위 안에서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 올림말의 수록이 영성하다는데서 북한사회의 지적 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 교시는 빈틈없이 수록돼

세째, 북한사회의 문학과 예술은 김일성주의를 적극 찬양 고무하는 것발이 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작품이 김일성주의를 적극 표방하며, 그 내용은 거의 천편일률적이나, 이에 대한 풀이는 기타 올림말의 풀이보다 몇배의 지면을 차지한다. 그리고 김일성의 담화나 연설 기타 교시는 빈틈없이 수록되어 있음은 물론, 상세히 풀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개념의 풀이에도 김일성주의는 깊숙이 개입한다. 가령 '문학'이란 올림말의 풀이도 김일성의 교시 인용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몇몇 북한 예술작품에 대한 풀이를 살펴볼때, 그 내용이 한결같다. 즉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혁명에 대한 찬양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루하게 접할 수 있었던 소련이나 동구라파의 예술들을 염두에 둘 때, 북한의 예술은 이데올로기계의 종속성과 혁명예의 도구성이 유난히 강한 듯하다. 「문학예술사전」의 올림말에 김일성이 내세운 정부정강인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하자'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올림말에는 장장 9쪽의 지면을 할애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또 찬양하고 있다.

네째, 어떤 올림말에 대한 풀이가 우리와 전혀 다르게 되어 있거나 매우 좁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원형'이란 개념은 우리측 사전과 상당히 다르게 풀이되어 있다.

북 / 전형 창조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의거하는 실제적인 인물. 원형으로 되는 인물은 시대의 본질과 일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원형에 기초하여 창작된 문학예술작품은 전형적 성격의 사실주의적 신실성으로 하여 인식교양적 의의를 강하게 가진다...

남 / 여러 복사가 발생되어지는 원본의 형태 또는 어떤 유형의 것들 전체가 공유하는 본질적 특징의 표시라고 믿어지는 그 생각... (「세계문예대사전」, 성문각, 1975)

남에서의 '원형'이란 개념은 그 철학적 함의를 매우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즉 플라톤적 사고나 신화비평적 사고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전형적 성격의 실제 모델만을 지칭한다. 하나의 용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은 반가운 일은 아니나 그렇다고 우열을 따질 일도 아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을 독자적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은 약간 문제가 있으며, 인류의 지적 유산에 대한 수용이 불편해진다.(남한측 사전은 풍성한 해설을 해주고 있으나 외국사전의 서투른 번역과 같은 문장이 거슬린다.)

이상과 같은 점들로 판단컨대 「문학예술사전」은 보편적 의미에서의 좋은 사전은 되지 못하는 것 같으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지적 수준이나 문학예술의 수준은 다소 실망스러운 점이 있고 아울러 남한사회와의 이질도가 심한 듯하다. 물론 이 사전이 북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전만으로는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한다.